진우 스님 "업장소멸로 마음 평안에 이르길"

1월 31일 조계사 정초기도 입재서
마음 속 분별 멈추고 욕심 줄이면
선업을 짓는 선순환에 이르게 돼
"선명상 실천으로 올해 평안하길"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3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정초기도 입재법회 법사로 나서 선업을 쌓아 평안에 이를 것을 당부했다.

"평안하려면 업을 줄여야 합니다. 업을 줄이려면 선업을 지어야 하죠. 그럼 자연스레 나쁜 일이 줄고, 모든 일에 만족하게 되어 욕심이 사라집니다. 욕심이 사라지면 다툼도 사라져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집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3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정초기도 입재법회 법사로 나서 선업을 쌓아 평안에 이를 것을 당부했다. 법상에 오른 진우 스님은 모순이 넘치는 사바세계에서 평안하려면 '업장(業障)'을 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업이 많은 사람은 어려움이 많고 적은 사람은 편안하다. 부처님은 업이 전혀 없으시다"며 "이에 부처님은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매일이 평안하시다. 이를 두고 우리는 '중도' '열반' '삼먁삼보리' '견성성불', 즉 깨달음의 경지라고 한다"고 설했다.

이어 "업은 우리 눈, 귀, 코, 혀, 몸, 뜻, 육근(六根)이 그 대상인 물질, 소리, 냄새, 맛, 촉감, 법 육경(六境)을 만나 발생한다. 그 업은 의식인 식(識)에 모두 저장된다"면서 "그 순간 식이 업에 오염되어 온갖 오류를 범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스님에 따르면, 중생은 특정한 사물을 볼 때 업이 저장된 식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대웅전의 기둥을 볼 때 '기둥' 그 자체를 보면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생은 '붉다' '길다' '굵다' 등 갖은 '생각'을 일으킨다. 생각은 분별을 불러온다. 분별은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동반한다는 것이 진우 스님의 설명이다. 이에 스님은 분별과 다툼을 일으키는 악업을 줄이고 선업을 증장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누군가 자기에게 욕을 했다고 치자. 그럼 식에 기분 나쁜 업, 악업이 저장된다. 또 인연이 되면 다시 식에 저장된 업이 다시 발동되어 또 다른 업을 낳게 된다"며 "이 끊임없는 악순환을 일러 우리는 '육도윤회'라고 한다"고 전했다.

"악업을 줄이려면 선업을 키워야 한다. 계를 잘 지키고 바라밀행을 해야 한다. 그럼 신구의 삼업(身口意 三業)이 청정해진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삼업 청정은 자연스럽게 보살행을 하게 된다. 보살행은 선업을 짓는 지름길이다. 선업은 복을 불러오고 욕심을 사라지게 한다. 그럼 또 다시 선업을 짓게 되는 '복의 선순환'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업장소멸의 비결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업을 불러오는 마음의 습관은 '분별'에 있다고 꼬집었다. 분별을 멈추는 방법으로 스님은 '방하착(放下着)' 선명상을 제시했다. 순간순간 일체를 내려놓는 방하착을 실천해, 분별하는 마음 습관을 고쳐 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회복하라는 뜻이다.

끝으로 진우 스님은 스스로의 마음 평안을 위해 꾸준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마음을 평안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멈추고 선명상을 하라. 명상이 힘들다면 기도, 염불을 열심히 하라"면서 "하루에 5분이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긴다. 오늘 정초기도를 계기로 마음 습관을 잘 들여 업장이 소멸되어 편안한 한 해 되시길 두 손 모은다"고 발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우 스님과 108배…국난 극복 염원

김병주 위원장 등 불자 의원 동참
"화쟁 정신으로 자비로운 세상"


더불어민주당 종교특위 위원들은 2월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108배를 하며 국난 극복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신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 불자 국회의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108배 정진을 함께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화합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종교특위 위원들은 2월 4일 오전 8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 부처님 전에 108배를 올렸다.

이날 정진에는 종교특위 불교위원장 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용선 종교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 김영배 종교특위 부위원장(정각회 수석부회장), 이수진, 전진숙, 백승아, 민병덕, 김준혁 의원과 이규민 조계종 정무특별보좌관, 김상기 종교특위 불교수석부위원장 등 10여 명이 동참했다.

정진 후 기자들을 만난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가와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 부처님 가르침과 가피로 국난을 하루빨리 극복하자는 염원으로 108배 정진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정치 원리가 모두 있다고 본다"면서 "화합 화쟁하며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재편한 종교특위의 활발한 활동으로 전통문화 보존 전승과 불교 중흥에 힘쓰는 한편, 종단과 불교 외호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종교 현안을 다루는 전체 위원회가 있고 산하에 불교위원회가 있다"고 설명하며 "조계종과 활발히 소통해 불교 관련 법안과 예산 확보를 적극 살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최고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인적 서원도 밝혔다. 군대 재직 당시 매일 108배를 했지만 최근에는 자주 하지 못했다는 김 최고의원은 "이번 동참을 계기로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서원도 세웠다"면서 "마음도 수양하고 몸도 닦으며 정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특위 불자 국회의원들은 108배 정진 이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비공개 차담을 갖고 불교계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불교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임은호 기자

"특별교구장, 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해야"

도륜 스님, 종법 완화 개정 제안
"입법자 투입은 신중" 반론 이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과 해외특별교구장에 중앙종회의원도 겸직할 수 있도록 종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은 삼권분립을 위해 중앙종회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군종과 해외특별교구장에 한해 종법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이하 종헌특위)는 2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륜 스님은 "해외포교 및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해외특별교구장과 군종특별교구장에 한해 중앙종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헌 제35조 1항에 따르면 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원의 총무부(부, 실, 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 사찰의 주지를 겸할 수 없다.

도륜 스님은 "군종특별교구와 해외특별교구는 산중총회를 하지 않고 교구장은 투표를 하지 않는 등 특별법에 의해 활동하고 있다"면서 "특별교구 활성화를 위해서 종회의원에게도 길을 열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원 스님은 입법기구 주체자가 실무에 투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특별교구 입법이 유리한 쪽으로 과해질 수 있는 상황도 피치 못하게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진 스님은 "특별교구장은 의무만 있지 권리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교구장 소임과 차이가 있다"면서 "충분히 논의해 볼만한 것"이라고 긍정적 의견을 표했다. 혜산 스님도 "해외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종단과 유대감이 높고 총무원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중앙 행정 경험이 있는 이가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이 맞서자 위원장 선광 스님은 "종회의원이 겸직함으로써 특별교구가 포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또 다른 인재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한다"면서 "군과 해외포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뉴진스님'에 "젊은층 전법" 당부

2월 5일, 신간 낸 윤성호 격려
'이고득락' 적힌 호신부 선물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뉴진스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성호 개그맨에게 "힘한 불교로 젊은이들에게 활발한 전법포교"를 당부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2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윤성호 개그맨의 예방을 받았다. 윤성호 개그맨은 지난해 '뉴진스님'으로 활동하며 젊은 층 사이에서 '힙한 불교'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는 슬럼프를 극복해 낸 노하우를 담아낸 책 '얼마나 잘되려고'를 출간했다. 이 책은 진우 스님이 추천사를 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윤성호 개그맨은 진우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존감이 떨어지며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기 위해 책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 오는 큰 변화를 담았다"면서 "고통을 이겨내면 극락이 온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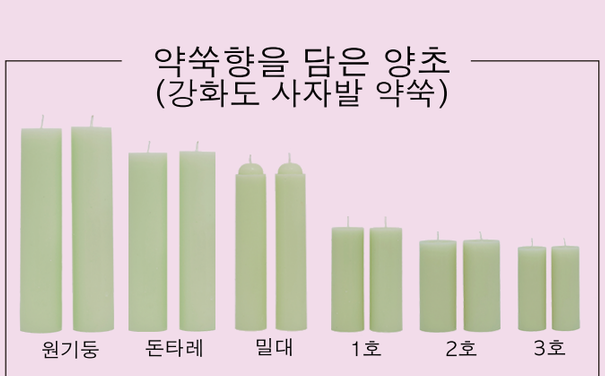
스님은 "이고득락의 가르침을 널리 전해, 앞으로 젊은이들이 출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침향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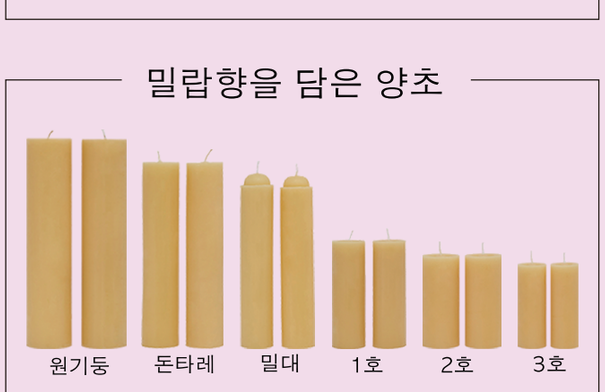
약쑥향을 담은 양초 (강화도 사자발 약쑥)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PC 팜 원통초

대 중 소

연꽃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중) 원기중(소) 1호

밀랍향을 담은 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밀납향을 담은 초

대 중 소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NAVER 삼환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쌍대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